

지방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대한 실태 연구 - 부산지역 벤처생태계를 중심으로 -

김도근^{1*}

An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Venture Business in Busan from the Venture Ecological perspective

Do-Geun Kim^{1*}

요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실업률의 해소를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지역 벤처생태계의 실태, 부산지역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정책 수요자의 태도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기간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정책이 참여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정책이 명확히 제시되었던 2004년에서부터 2006까지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벤처생태계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대단히 취약함이 확인되었고, 참여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벤처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부산지역의 벤처육성 지원시책은 IT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지원대상의 다양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Busan venture-ecosystem in mind that venture-policy is to be propelled actively for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improving the rate of joblessness in Busan. The Analytic framework is the concept of venture-ecosystem which is focused on interaction between the venture business and the environment. Because it has provided the conceptual frame of the venture-policy to make venture-friendly environment. Period of analyzing Busan venture-ecosystem is from 2004 to 2006 because venture-policy was changed greatly by participation government sailing. According to study finding, Busan venture-ecosystem is very weak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ide.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situation of Busan venture-ecosystem is high to be worsed by participation government's policy change. Also, venture policy and measures of Busan area shows that diversification of support target is urgent because of being overemphasized in IT industry.

Key words : Venture Business, Venture-Policy, Venture-Ecosystem

1. 머리말

경쟁권역의 통역화,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시공간의 거리감 해소 등 경쟁환경의 급변은 경쟁력 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별적 경쟁우위 혹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업의 핵심역량은 뛰어난 기술력과 가치창출방식의 혁신능력에 있다[1]. 따라서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8%, 전체 고용의

86.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2].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의 73%로 시장선점형 기술개발 단계라기보다는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 기술경쟁력과 혁신능력을 상징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체수의 0.3%에 불과하여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3].

다른 한편으로 벤처기업의 경제 파급효과는 창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창출능력 10배, 매출액 6배, 평균 수출규모 11배 등으로 나타나

¹동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신저자 : 김도근(dgkim@tu.ac.kr)

벤처기업의 육성은 고요없는 성장 시대의 사회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4]. 그러나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80~90%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율은 10~40% 수준에 그쳐 창업과정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 사이에는 이른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다윈의 바다(Darwinian sea)’가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5]. 바로 여기에 벤처기업 육성의 당위성이 있고, 더욱이 시장개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민경제의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2000~2005년 부산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4.9%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9.7%에 이르고 있다[6]. 벤처기업 비중이나 벤처기업 유형에서도 부산지역의 경쟁지반은 매우 취약하여 지역경제계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침체된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산지역 벤처생태계를 분석해 보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의 현황과 수요자 태도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의 현황분석은 관계기관의 내부자료와 관계자 면담 결과를 활용하였고, 수요자 태도분석은 팩스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기간은 벤처기업 육성지원 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참여정부 정책이 제시되었던 2004년에서부터 2006까지로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현황 파악 과정에서의 자료미비 및 자료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분석자료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과 수요자 태도 조사의 표본수 부족으로 다양한 변량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II. 벤처생태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1. 벤처생태계 개념

참여정부 들어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기반으로 했던 분야별 일률적 지원방식의 과거 정책과는 달리 성장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지원을 통해 퇴출과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 벤처생태계의 구성에 주요기초가 설정되었다[3]. 따라서 지방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벤처생

태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벤처생태계란 용어는 Tansley의 생물학적 생태계¹⁾의 개념을 빌려와 조직의 진화과정을 설명하려는 조직생태학 이론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8]. 국내 문헌에서 벤처생태계라는 용어는 이우광, 김범식, 유용주[9]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 정대용과 김용주[10]에 의해 다듬어졌으며, 이어서 2000년에 개최된 삼성경제연구소 주최의 “한국의 벤처생태계 진단”이라는 심포지움 이후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다[11]. 이에 의하면 벤처생태계는 벤처기업이 경영환경과 더불어 공진화(co-evolution)하는 서식조건이며, 벤처기업의 성장·진화·융합·분화가 이루어지는 자기증식시스템이기도 하다. 또한 자기증식과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행위자들 간에 지식, 정보, 인력, 자금의 창출·공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12], 시장원리와 적자생존에 철저히 하며 변화지향, 지식공유, 실패에 대한 관용 등의 문화가 정착된 시스템이어야 한다[13].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벤처생태계는 생태계 발전의 주요 요소인 지식, 정보, 기술, 인력, 자금 및 인프라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기업이 정신 고취,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술이 재창출되고 있는 주변공간과 벤처기업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2. 지역혁신에 관한 이론들과 벤처생태계

벤처생태계의 형성 및 발전요인은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이 집적하여 차별적 경쟁력을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신산업공간론, 산업지구론, 혁신클러스터론, 지역혁신체제론 등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14]. 특정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예 대해 신산업공간론은 전문가의 집적과 더불어 연구개발활동과 생산라인의 공간적 집적에 의해[15], 산업지구론은 집적효과에 의한 의사소통과 사회문화적 패턴 등에 있어서의 사회자본의 축적에 의해[16, 17], 혁신클러스터론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의 전후방 가치사슬에 연계된 기업군, 지식생산기관, 연관 조직 및 고객 등 인접한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체계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의해[18], 지역혁신체제론은 전후방 가치사슬이 구축된 클러스터 기반 위에서 다양한 주체들끼리 긴밀히 상호협력하고 공동 학습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설명한다[19]. 이들 이론들이 공동적으로 지적하는 지역

1) Tansley에 따르면, 생태계는 환경과 생물군집이 상호작용함과 동시에 시공간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7].

산업발전의 성공조건은 지역내 행위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지역내 혁신동력을 재생산하는 제도들이다[11]. 특히, 혁신동력의 원천으로는 인적 자원 공급과 암묵적 지식의 생산[20, 21], 창업 스피로버(spill-over)와 기업 간 지식소통 및 상호협력[21, 22], 전후방 가치사슬의 연쇄[23], 지역의 사회자본[24]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혁신에 관한 이론들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벤처생태계를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비유하여 벤처기업(생산자), 벤처캐피탈(소비자), 코스닥/M&A(분해자) 간의 상호작용의 체계로 파악하는 입장은 벤처생태계의 생성과 진화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켰다[25]. 따라서 한정화[12]는 벤처생태계를 핵심요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기반요소(대학 및 대학 내 기관,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사이언스 파크, 법률회사 및 컨설팅사, 엔젤 등), 외부요소(정부 및 해외벤처)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 체계로 벤처생태계를 정의하였다. 한편 이철우[26]는 벤처생태계를 생태계의 구성요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와 환경적 구성요소(물리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 등으로 나누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형태로 정의내렸다. 손동원[11]은 벤처생태계를 행위자(벤처기업, 대학, 연구기관, 벤처캐피탈, 법률·회계 등), 네트워크(행위자간 연계), 제도(시장과 문화적 인프라, 지역에 뿌리내린 착근성), 물리적 인프라(도로, 항공망, 통신망 등 물리적 하부구조) 등 4개 구성단위의 상호 교통망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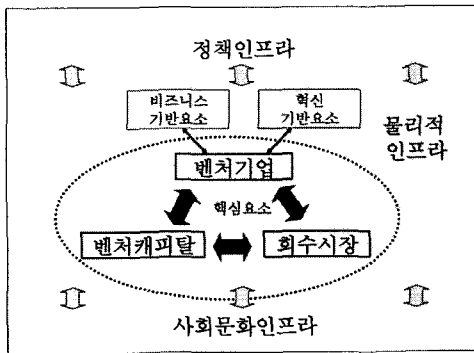


그림 1. 벤처생태계 모형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를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을 핵심요소로 하여 벤처기업의 혁신동력을 자기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의 혁신기반요소와 법률, 회계 및 컨설팅 등 비즈니스 기반요소의 행위자들이 정책인프라, 사회문화인프라, 물리적 인프라의 기반 위에서 축적하는 사회

적 자본의 관계망으로 정의한다(그림1).

3. 분석대상

앞에서 살펴본 벤처생태계 모델은 지구단위 벤처기업의 집적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입지이론적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벤처생태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상당부분이 대전지역의 대덕단지, 인천지역의 송도, 서울지역의 여의도, 테헤란로 및 구로 등 벤처기업 집적지구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11, 16, 27, 28, 29, 30]. 즉, 벤처생태계 모델은 집적지구 혹은 집적시설을 분석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사전 조사결과, 부산은 인구 약 370만명, 면적 764.34 km²의 광역도시이며, 벤처기업들이 16개 구·군에 걸쳐 소규모로 집적되어 산재되어 있어 비즈니스 기반요소, 혁신 기반요소, 사회문화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정책적 인프라 등은 벤처집적지 형성에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 부산지역 벤처생태계의 실태파악은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으로 구성되는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부산광역시의 벤처육성 시책과 정책수요자 태도에 관한 분석은 벤처생태계 모형을 따라 진행하였으나 물리적 인프라에서는 사전 조사단계에서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사회간접시설 부분을 제외하고 입지지원에 대한 사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표1).

표 1. 분석대상

구성요소	세부요소	분석대상		
		실태 분석	시책 분석	수요자 태도
핵심요소	벤처기업	○	○	○
	벤처캐피탈	○	○	○
	회수시장	○	○	○
비즈니스 기반요소	경영지원		○	○
혁신기반 요소	산·학·연 공동연구		○	○
사회문화인프라	사회자본 형성 노력		○	○
물리적 인프라	입지시설제공		○	○
정책적 인프라	지방정부 정책			○

III. 부산지역 벤처생태계 실태

1. 부산지역 경제일반

부산지역의 인구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381만 2천명, 2003년 371만 1천명, 2005년

365만 8천명 등 인구증가율에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비중도 2000년 5.9%, 2003년 5.9%, 2005년 5.7%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상조업 업체 비율 역시 2002년 80.5%, 2003년 79.4%, 2005년 78.1%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31]. 한편 부산지역 신설 법인의 수는 2002년 3,620개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창업 활성화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창업배율(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비율)도 2003~2006년 각각 10.7, 11.4, 15.8, 25.2 등으로 나타나 장기적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도 최근 들어 경기회복의 긍정적 조짐을 보이고 있다(표2).

표 2. 신설 및 부도 법인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설법인수 (A, 개)	3,620	3,109	2,813	2,896	2,948
부도법인수 (B, 개)	229	291	247	183	117
창업배율 (A/B, 배)	15.8	10.7	11.4	15.8	25.2

※자료 : 한국은행 부산본부(해당년도)

그러나 2003~2006년 지역별 경제적 고통지수²⁾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광주 다음으로 높은 전국 순위 2위를 차지하였고, 실업률 역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체감지수의 측면에서는 아직 경제여건의 개선조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32]. 현재의 긍정적 경제여건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를 지역 기술 경쟁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술혁신 가능성을 가능하는 기술혁신 잠재력 지수에서 부산지역은 전국 평균 4.75 보다 매우 낮은 1.49, 16개 시·도 중에서 14위로 나타나 현재의 추세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표3). 기술경쟁력을 나타내 주는 또 다른 변수인 벤처기업의 현황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 지역별 기술혁신 잠재력

구분	대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기술혁신 집중도	19.44	6.96	1.49	2.13	2.42	4.75
잠재력 순위	1	3	14	10	7	-

※자료 : 산업자원부(2004)[33]의 자료정리

2) 지역별 경제적 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 조사작업을 수행한 LG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제안한 지표 개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을 수정하여 물가와 실업률 외에도 어음부도율과 산업생산증가율을 포함한 4가지 구성요소를 각각 표준화한 값으로 경제적 고통지수를 산출하였다.

2. 벤처기업

부산·울산지역의 벤처기업 수는 2003년 386개, 2004년 397개, 2005년 461개, 2006년 670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의 전국 비중은 동 기간 4.7~5.5%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벤처기업 증감율은 2005년까지는 전국 평균치 보다 낮았으나 2006년 전국 평균 25.5% 보다 훨씬 높은 45.3% 증가세를 보여 양적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증가추세는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표4).

표 4. 벤처기업 현황 (단위: 개, %)

	2003		2004		2005		2006	
	수(증감율)	전국 비중	수(증감율)	전국 비중	수(증감율)	전국 비중	수(증감율)	전국 비중
부산·울산	386 (-19.7)	5.0	397 (2.8)	5.0	461 (16.1)	4.7	670 (45.3)	5.5
전국 합계	7,702 (-12.3)	100	7,967 (3.4)	100	9,732 (22.2)	100	12,218 (25.5)	100

※증감율 =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 <http://nsportal.stat.go.kr>의 료정리

그러나 2005년 기준 부산·울산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10.6%, 중소기업 전국 비중은 10.4%이나 벤처기업의 전국 비중은 4.7%에 불과하였다.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성을 대리 측정할 수 있는 Metric Value1의 배율은 0.44,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대리 추정할 수 있는 Metric Value1의 배율도 0.45에 불과하여 적정기준 1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이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보다 낮아 지역경제 구조의 낙후성을 잘 보여준다. 반면에 수도권은 Metric Value1의 값이 1.45, Metric Value1의 배율도 1.46으로 나타나 수도권 경제력 집중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준다(표5).

표 5. GRDP 및 벤처기업 비중(2005년) (단위: %)

지역	GRDP	중소기업 전국비중	벤처기업		
			전국 비중	Metric Value1*	Metric Value2**
부산·울산	10.6	10.4	4.7	0.44	0.45
대구·경북	10.4	11.3	6.7	0.64	0.59
광주·전남	7.2	6.7	3.9	0.54	0.58
대전·충남	8.0	6.6	6.9	0.86	1.05
수도권***	47.4	47.2	68.8	1.45	1.46

*Metric Value1 = 벤처기업 전국 비중/GRDP

**Metric Value2 = 벤처기업 전국 비중/중소기업 전국 비중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자료 : <http://nsportal.stat.go.kr>의 자료정리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총 567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475개(83.8%), 정보처리S/W업 56개(9.8%), 연구개발서비스업 14개(2.5%), 건설운수업 6개(1.1%), 농·어·임·광업 4개(0.7%), 기타 12개(2.1%) 등이다. 동년 제조업종 벤처기업의 전국 비중이 71.9%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부산은 제조업 벤처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원인은 조선, 자동차, 중화학, 기계부품 등이 주력 산업인 동남공업벨트의 주요 거점도시의 하나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34]. 2006년 기준 중소기업청 벤처넷³⁾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체 492개 중에서 기술평가나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신기술기업이 420개(85.4%), 연구개발 투자 기업이 54개(11.0%),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이 4개(0.8%) 등이었다(표6). 고위험 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잠재적 성장성은 시장원리에 의해 온전히 판별된다고 볼 때[35],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의 비중이 0.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벤처기업 구성유형과 벤처캐피탈 산업의 취약성을 잘 말해 준다.

표 6. 구·군별 벤처기업 현황

구·군	신기술			벤처 캐피탈 투자	연구 개발 투자	예비 벤처	합계
	기술평 가대출	기술평 가보증	신기술 기업				
사상	3	25	64	1	12	1	106
강서	0	29	53	1	11	0	94
사하	0	17	47	0	4	1	69
북구	1	2	14	0	2	0	19
금정	0	10	19	1	9	4	43
동래	0	3	14	0	0	0	17
남구	0	7	21	1	4	5	38
해운대	0	3	14	0	3	0	20
기장	0	5	15	0	1	0	21
부산진	1	7	10	0	0	2	20
영도	0	2	7	0	3	0	12
기타	0	7	20	0	5	1	33
합계	5	117	298	4	54	14	492

※자료 : <http://venturein.or.kr> 자료정리

부산지역 벤처기업의 구별 분포를 [표 5]에서 보면, 전체 492개 업체 중에서 사상구 106개(21.5%), 강서구 94개(19.1%), 사하구 69개(14.0%), 금정구 43개(8.7%), 남구

38개(7.7%), 기장 21개(4.3%), 해운대와 부산진구 각각 20개(4.1%) 등이었다. 권역별로 볼 때 부산지역의 벤처기업은 부산대 인근을 중심으로 한 금정권(금정구+동래구)에 60개(12.2%), 경성대, 센텀시티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남구+해운대구+기장군)에 79개(16.1%), 전통적 공업지대인 서구권(사상구+강서구+사하구)에 269개(54.7%)가 입지해 있다. 특히, 서구권의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기존 공장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고, 동남권과 금정권은 IT 분야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36].

3. 벤처캐피탈 및 회수시장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차입금 상환능력이나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이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의존하는 곳은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엔젤클럽 등 벤처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부산에 본사를 둔 창업투자회사는 2006년 1개(전국 111개)였다[37]. [표7]에서 2004~2006년 신규로 결성된 우리나라 전체 창업투자조합은 각각 40개, 45개, 48개 등이나 부산지역은 2006년 1개만 설립되었다. 창업투자조합의 결성금액 누적치도 2004년 170억원(0.40%), 2005년 170억(0.36%), 2006년 171억원(0.37%) 등에 불과하였다. 부산지역 창업투자조합의 운영기간은 2000~2005년 1개, 2003~2007년 1개, 2006~2013년 1개 등으로 나타났다[38]. 이렇게 창업투자조합이 단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조합 존속기간 내 투자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조합 결성단계에서부터 회피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39].

표 7. 창업투자조합 결성실적 (단위: 개,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부산	전체	부산	전체	부산
신규	조합수	40	0	45	0	48	1
	결성금액	6,978	0	8,306	0	8,771	0
누적	조합수	424	2	400	2	350	2
	결성금액	43,028	170	46,786	170	46,722	171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06) [37]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 내부자료(2006)

지역의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엔젤클럽은 2004년 기준으로 부산상의 엔젤클럽, 향도 엔젤클럽, 미리내 엔젤클럽 등 3개가 설립되어 있으나 최근 투자실적 없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표8). 엔젤클럽 침체의 원인으로는

3) 중소기업청 벤처넷(<http://venture.smba.go.kr>, <http://venturenet.or.kr>)은 2007년 6월 4일 벤처인(<http://venturein.or.kr>)로 통합되었다.

투자금의 회수가 투자대상 업체의 코스닥 등록 이외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엔젤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는 코스닥 이외에 회수시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표 8. 부산지역 엔젤클럽 현황

이름	결성일	회원수	투자실적	
			투자금액	투자업체수
부산상의 엔젤클럽	2000. 1	200명	6억원	2
항도 엔젤클럽	1999. 4	157명	9억원	3
미리내 엔젤클럽	2000. 1	10명	1.6억원	3

※자료 :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내부자료(2005)

[표9]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현황을 보면, 2005년 전국 635개 업체에 7,573억원이 투자되었으나 부산은 6개 업체에 107억원이 투자되어 전국 비중이 0.94%였다. 2006년에는 전국 617개 업체에 7,333억원이 투자되었고, 부산은 5개 업체에 70억원이 투자되어 전국 비중 0.81%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부산지역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활성화가 긴급과제임을 말해 준다.

표 9. 벤처캐피탈 투자현황 (단위: 억원, 개, %)

	2005년			2006년		
	전체	부산	비중(%)	전체	부산	비중(%)
창투* (업체)	6,651 (524)	97 (5)	1.46 (0.95)	6,724 (574)	70 (5)	1.04 (0.87)
KVF** (업체)	922 (111)	10 (1)	1.08 (0.9)	1,059 (79)	0 (0)	0 (0)
총합계	7,573 (635)	107 (6)	1.41 (0.94)	7,333 (617)	70 (5)	0.95 (0.81)

*창투 = 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

**KVE :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내부자료(2007)

표 10.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수

지역	2004년	2005년	2006년
서울	9개	14개	14개
부산·울산	0개	1개	0개
대구·경북	2개	3개	1개
인천	0개	3개	2개
대전·충남	1개	7개	4개
경기	11개	15개	17개
전국	27개	46개	40개

※자료 : 대신증권(2007)[40]의 자료정리

벤처기업 투자금의 회수시장은 크게 코스닥 등록, 장외시장, 제3시장, M&A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업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코스닥과 M&A가 대표적이다. 부산지역의 벤처기업들 중에서 코스닥 등록업체는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전국 113개 업체 중 1개 업체에 불과하고, M&A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표10).

4. 소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부산지역은 벤처기업의 전국 비중이 지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유형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비중이 미미하여 벤처기업의 구성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은 전국 비중이 1% 미만, 지역에 본사를 둔 창업투자회사는 1개, 창업투자조합은 3개(1개는 2005년 만료), 엔젤클럽은 3개(사실상 투자활동 중단상태) 등으로 나타나 벤처캐피탈의 활동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원인은 벤처캐피탈의 순환체계(투자자 - 투자정보 및 투자대상 - 회수시장) 등이 입지측면에서 클러스터 응집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육성과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기조로 하는 참여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은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정책자원이 집중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소기업정책의 효과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IV. 부산지역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

1. 벤처생태계 관련 시책 개관 및 분석방법

부산지역 벤처생태계 육성 관련 시책을 2006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로 종합해 보면 [표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벤처기업과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구성하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에서 잘 나타난다[41].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계
부산·울산	33개 (3.0%)	22개 (2.9%)	25개 (4.8%)	8개 (7.5%)	88개 (3.5%)
전국합계	1,029개	766개	519개	107개	2,482개

5)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단계, 초기성장단계(창업 후 최초 제품 출시로 매출발생), 고도성장단계(후속제품 출하로 제품 다각화와 순이익 창출), 성숙단계(매출이 안정화되고 증시에도 상장), 정제단계(매출정체로 활로 모색) 등이 있다[42].

표 11. 부산 벤처생태계 육성관련 시책

벤처생태계 요소		부산광역시 시책	
		창업단계	성장단계 (초기성장단계-고도성장단계)
핵심요소	벤처기업	• 중소벤처창업자금	• 벤처기업지원자금 • 중소IT벤처 지원사업
	벤처캐피탈	-	• 부산벤처투자펀드 운영
	회수시장	-	-
비즈니스 기반요소	경영지원	• 창업교육	• 벤처기업 CEO교육 • 전시회, 박람회 등 국내외판로 및 마케팅 지원
	인력공급	• Brain 21, 누리사업 등 인력양성 사업	
혁신기반 요소	산학연 공동연구		• 산업기술정보망 • 부산기술이전센터 운영 • 부산서구지식재산센터 운영
			•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 RIC 4개, ITRC 1개, 각종 연구센터 14개 등 지원
사회문화인프라	사회자본 구축		•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 기업인 예우조례 및 포상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물리적 인프라	입지시설	• BI, TBI 운영 지원 • 벤처빌딩·단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중소IT·벤처 지원시설	-
			• 7개 산업 및 농공단지 운영 • 4개 산업단지 조성 중 • 2개 산업단지 계획중
정책적 인프라	기관운영	• (재)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기관 운영	

그러나 이들 시책의 많은 사업들은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기 보다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며, 벤처생태계 측면에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효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서의 시책은 사업의 직접 목적이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있거나 사업효과가 벤처생태계의 하위 개념인 혁신생태계의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연 공동 연구활동⁶⁾ 그리고 벤처생태계 관련 정책과정(policying)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은 일반적으로 금융지원, 기술지원, 창업지원, 입지지원, 경영지원 등으로 구분된다[44, 45]. 부산시의 경우, 일반분류 이외에 IT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시책을 주무부서의

행정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동 시책이 정보통신부의 사업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부산광역시의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은 창업지원, 입지·시설 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등 벤처기업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과 IT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외 벤처 관련 시책의 정책화 과정의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연구회 사업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2004-2006년 사이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상공회의소 등의 내부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2007년 4월 17일에서 5월 16일까지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접촉한 관계자 면담을 통해 시책별 사업을 평가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관계자료의 미비, 사업 소관부서의 변경, 사업 담당자 변동 등 자료입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분석내용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확인된다.

6) 손동원(2006)에 따르면 벤처생태계는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시장-회수시장'으로 구성되는 벤처생태계와 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지식을 공급하는 벤처기업-대학/연구기관-대기업으로 구성되는 혁신생태계를 의미한다[43]

2. 벤처기업 일반 시책

2.1. 창업지원

2.1.1 창업박람회, 창업강좌 및 벤처CEO 교육

창업박람회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창업관련 아이템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지역 창업을 촉진하여 실업인력 해소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창업박람회는 참가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창업상담의 효과도 불확실하여 목적부합성이 낮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관람객에 의한 경제효과 등의 이유로 인해 지속되고 있어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창업강좌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2004년 일반강좌 4개 과정(수강생 228명), 전문강좌 3개 과정(수강생 145명) 등이 운영되었고, 2005년 일반강좌가 기술창업패키지1000 종합지원시스템으로 변경되어 1개 패키지(교육신청 54명 교육인원 41명 수료인원 30명), 전문강좌 1개 과정(수강생 45명) 등이 운영되었다. 동 사업에 대한 교육수료생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이 없어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시에서는 2004년부터 경영관리, 마케팅, 경영전략 등에서 애로를 겪는 벤처기업의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벤처기업 CEO 대상의 교육은 강좌효과 이외에 참가자 간 정보교류 및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2.1.2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동아리 지원은 대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 시킴으로써 대학내 창업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2004년 현재 부산지역의 대학생 창업아리는 27개 동아리(15개 대학, 총 584명)이며, 5개 동아리에 2천 5백만원이 지원되었다. 그 동안 부산·울산지역에서 지원되었던 동아리는 2004년 10개, 2005년 9개, 2006년 4개 등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단순 아이템 개발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가시적인 운영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동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참여도를 현재보다 높이고, 성공 기업인을 멘토로 지정하여 창업의욕을 북돋아 주며, 학점과 연동되는 벤처창업 강좌가 폭넓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3 벤처기업인 포상과 기업인 예우 조례

부산광역시에서는 벤처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벤처산업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탁월한 경영능

력과 새로운 기술혁신 등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지역의 우수 벤처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해 왔다. 또한 부산벤처기업협회도 신기술혁신상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벤처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나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이 없어 기업인들의 관심도는 낮다.

부산시는 2005년 6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시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신기술혁신상, 무역의 날과 상공의 날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동 조례는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소수 기업의 경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징효과에 그치고 있다.

2.1.4 창업보육센터

1994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창업보육 사업은 1998년 경영 및 기술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도 창업보육 사업에 나서 2005년 기준 창업보육센터는 전국 309개에 이르렀다. 이후 창업보육센터의 내실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어 2006년 현재 전국에 268개가 있으며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동 사업은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되었다.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청 소관 창업보육센터는 2004년 20개 센터(지역 대학 19개, 연구소 1개)이며, 총 보육업체 288개사이다. 2005~6년에는 19개 센터(지역 대학 17개, 연구소 1개, 여성센터 1개)에 총 390개 보육업체가 입주해 있다.

동 사업은 입주업체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창업보육센터 별로 운영성과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 실정상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입주 희망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된다.

2.1.5 부산이노비즈센터

2006년 3월 개소한 부산이노비즈센터는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의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1,860평의 부지에 1,070평(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시설로, 보육실 및 회의실(19실 632평), 상담실(68평),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동 센터는 지역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을 제고를 위하여 현재 BI센터의 창업보육 기능보다는 자립기반과 자생력이 있고 시제품을 개발한 후 본격제품 생산에 돌입해야 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을 전문으로 지원한다.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사업 보유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등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동 사업은 대학 연구소와 센터 입주기업과의 실질적인 산학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대학의 연구프로젝트 수주와 지적재산권 사업추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의 석·박사들이 기업의 임직원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2.2 입지·시설지원

2.2.1 IT분야 지원시설

부산지역의 IT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5개 시설(77개 입주실)이 운영되고 있다(표 12). 현재 동 시설들은 IT트렌드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IT장비를 최신·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희망업체에게 무료로 이용 지원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하여 장비 첨단화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 동 시설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설 이용업체의 만족도는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외부에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시설 입주업체에 비해 사용 신청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있어 운영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부산 IT산업지원시설

입주 시설명	규모 (평)	입주실	입주사	운영비 (백만원)
부산 IT벤처센터	1,208	17개	12개	220
부산SW지원센터	1,435	25개	23개	334
모라SW지원센터	314	3개	3개	22
멀티미디어지원센터	1,378	21개	21개	289
부산정보통신연구원	305	10개	11팀	93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2006)

2.2.2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인프라를 지원함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자 2001년 도입되었고, 2006년 기준 전국에 25개 지구가 지정되었다. 부산지역은 2001년 11월 대연동 및 하단동 2개 지역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4년 CBS벤처빌딩, 부산벤처빌딩,

백양벤처빌딩, 센터벤처타운 등 4개 빌딩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사업은 대연지구가 2004년 12.57억원, 2005년 2.42억원을 지원받았고, 하단지구가 2004년 5.0억원, 2005년 2.42억원 등을 사업지원 받았다. 지구별로 벤처촉진지구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2개 지구에 IT벤처 클러스트 지원 10개소, 인력양성 400명, 협의회 운영 2회, 우수기술 특허자산화 사업 9개사, 마케팅 지원 20개사, 공용장비지원 16개사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예산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예산은 2005년 이후 크게 감소되었다.

2.3 자금 및 투자지원

자금지원에는 벤처기업자금지원과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이 있다. 2004~2006년 부산광역시의 벤처기업자금 지원 사업의 실적은 전무한데, 이는 자금신청 벤처기업들이 대부분 자금지원 규모가 큰 시설자금이나 중소기업 대상의 자금지원 사업에 신청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중소벤처창업자금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2,144백만원(47개 업체), 2005년 17,010백만원(68개 업체), 2006년 27,231백만원(59개 업체)이 지원되었다[46].

부산광역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신산업분야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산벤처투자펀드 1~3호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펀드 1호는 2000년 60억원 규모로 설립되어 2005년까지 운영되었다. 부산광역시는 투자조합에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법규정(지방재정법 제15조의 출자제한 규정)에 따라 (재)부산테크노파크를 통해 간접투자 했고, 2005년 2월 기준으로 총 7개사 36억원이 투자되어 16.96백만원이 회수되었다(표13).

펀드 2호(2003. 9~2007. 12)는 11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2006년 말 기준으로 6개사 61.5억원이 투자되었다. 또 펀드 1호가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부산전략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11억원 규모의 펀드 3호(2006~13년)

표 13. 부산벤처투자펀드 1호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리노공업	보이소반도체	(주)테코	SJ하이테크(주)	(주)이에스텍	(주)한중CIT	(주)KSP
투자액	600	400	500	300	500	300	1,000
코스닥등록	매각	매각	매각	-	-	매각	2004.12
회수실적	1,482	50	14			150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2005)

를 조성하여 전략산업 및 기계제조업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펀드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펀드 1~2호는 주로 IT 분야에 집중 투자되었고, 펀드 3호는 전략산업 중 기계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어 투자범위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투자대상 업체의 선정도 단시일 내 투자회수가 가능한 성장단계의 업력이 비교적 높은 업체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단계 벤처기업으로까지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 기술지원

기술지원 사업으로는 지역혁신센터(RIC: Regional Innovation Center) 운영,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기술거래소 및 산업정보망 운영 등의 사업이 있고, 14개 각종 연구센터 운영지원 및 설립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역혁신센터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장비구축 및 활용,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혁신역량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서 매년 약 7억원의 예산이 10년간 지원된다. 동 사업은 2006년 지역협력연구센터(RRC: Regional Research Center) 사업과 지역기술혁신센터(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사업을 통합한 것이며 2006년 현재 4개 지역혁신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은 2005년 현재 48억 2,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16개 대학과 2개 연구기관이 357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5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산업기술정보망(<http://www.biic.or.kr>)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산업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7년 구축되었고, 2001년 사업종료에 따라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다. 2006년 말 현재 기업정보 9,658건, 생산품정보 11,213건, 전문인력정보 5,704건, 시험연구장비정보 3,337건, 조합정보 71건 등의 자료가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생산품, 시험연구장비 등의 정보에는 종별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인력정보 역시 간단한 인적 사항 밖에 없어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 개발기술의 이전과 우수기술 발굴 및 알선을 목적으로 기술거래, 우수기술평가, 기술이전과제 발굴 등의 사업이 부산기술이전센터(2002년 개소)를 통해 추

진되고 있다. 2005년 성과로는 기술거래 1건, 우수기술평가 4건, 기술이전동비과제 발굴 32건, 특허출원 74건, 시제품개발 222건, 공정개선 217건, 신기술 개발 135건 등이다.

기술지원 활동을 전국과 비교하여 보면, [표14]에서처럼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16개 시도 중 11위, 지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를 나타내는 Metric Value는 13위로 매우 낮았다. 또한 연구개발인력의 비중도 8위, Metric Value는 13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표3]에서와 같이 기술개발 잠재력은 전국 16시도 중에서 최하위에 가까운 14위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 준다.

표 14. 부산의 연구개발 전국 비중(2005년)

	전국 비중(%)	순위	METRIC VALUE*	
			값	순위
연구개발비	1.46	11	7.72	13
연구개발인력	3.59	8	7.08	13

*연구개발비 Metric Value = (연구개발비/GRDP)×1,000 연구개발인력 Metric Value = (연구개발인력/경제활동인구)×1,000
※자료 : 과학기술부(2005)[47] 자료정리

3. IT 중소·벤처기업 지원

3.1 스타벤처 지원 및 IT벤처 클러스터 지원

IT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2003~2005년 스타벤처지원사업과 IT벤처 클러스터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스타벤처지원사업은 차세대 지역 IT산업을 이끌어갈 유망 IT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업체는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의 우선 투자심사 대상으로 추천되고, 맞춤형 마케팅사업비를 최대 2천 7백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집중 지원받게 된다. 2003년 3개 업체가 선정되어 투자유치 20억원, 기술신용담보대출 17억원 등 직접 자금조달 지원 외에도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었다.

IT벤처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지역 IT기업들이 3개 업체 이상 모여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개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 애로기술 개발이나 공동 상품화를 추진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동 사업들은 2006년 중단되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IT중소벤처기업 활성화사업인 IT스머프(SMERP;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Revitalization Project)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스타 벤처 지원사업은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기업들의 기대수요가 크기 때문에 사업재개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국제 IT교류 협력 등 마케팅 지원

지역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교류를 통해 선진기술 습득 및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위하여 2004년부터 국제 IT교류 협력 및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주요사업은 한·중·일 IT기업 교류상담회,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IT·멀티미디어 전문가 세미나, 해외글로벌 마케팅 홍보지원(통·번역, 브로셔 지원 등) 등이다.

동 사업은 2006년 수출상담 46건(1,804천불), MOU 체결 7건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화 역량이 부족한 지역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동 사업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호의적이나 사업기획의 재원 및 기획역량 등의 문제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3 부산벤처플라자 개최

부산벤처플라자는 부산시가 지역 IT벤처 기업의 신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개최되어 왔다. 2004년에는 전국 130개 업체(250부스 규모)가 참가하였고,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해 최초로 현장 매출계약 3건(1.55억)이 체결되었다. 동 전시회는 'ITU텔레콤아시아2004'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제고된 IT도시 부산의 이미지와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 IT산업의 저변 확대, 마케팅 및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2005년부터 국제 규모의 IT전문 전시회인 IT EXPO BUSAN로 확대되었다.

2005년 전시회에서는 U-Korea 및 U-City 관련 시스템, IT 839 전략과 연계된 시스템,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타 자동화 시스템 등 IT 산업 전반의 H/W와 S/W 등이 출품·전시되었다. 전시회 기간 중 약 4.3만명이 관람하였고, 국내의 바이어 216명(해외 5개국 104명) 참가하여 현장에서 47.73억원의 판매계약이 성사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에는 'Life with U!'의 슬로건과 '자연스럽게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는 테마 하에 국내의 191개 업체(대학 80부스를 포함한 504부스 규모)가 참가하였다. 관람객 약 11만명, 현장상담 217건, 판매계약 체결 83.07억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

4. 지역혁신협의회

부산의 지역혁신협의회는 2004년 11월 현재 본 협의회 1개, 5개 분과협의회, 총 1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기관으로는 동북아 혁신센터, 부산인적자원개발원, 부산산업클러스터 산학관 협의회, 부산지역 기업협의회, 부산지역혁신연구회 등 5개 기관이 있다.

[표 15]에서 위원들을 혁신주체별로 분류하면[48], 기

초연구개발이 9명(5.1%), 응용기술개발이 4명(2.3%), 생산이 12명(6.8%), 금융이 4명(2.3%), 마케팅·유통이 1명(0.6%), 인력양성이 1명(0.6%), 경영지원이 23명(13%), NGO가 6명(3.4%), 언론이 10명(5.6%), 노동이 1명(0.6%), 여성이 4명(2.3%), 공공행정기관(㉠+㉡+㉢+㉣+㉤+㉥)이 38명(21.4%), 학계가 64명(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주체별 참여비율이 불균형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혁신의 핵심역량인 산업체의 기초연구개발개발 및 응용기술개발, 생산 등 3개 혁신주체 부문의 참여도가 낮아 현장 애로점이나 혁신적 아이디어가 수용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금융 부문에서의 참여도도 낮았다. 한편 영상 및 IT산업은 대학 못지않게 즉각적 현장 투입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학원 등이 중요한 데 협의회에 전혀 참여되고 있지 못하여 협의회의 구성이 지나치게 대학중심적임을 보여준다.

표 15. 부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구성

혁신주체 구분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기획조정	전략산업1	전략산업2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기초연구개발	3	1	2	1	-	2
㉡응용기술개발	-	1	1	-	-	2
㉢생산	-	1	3	6	-	2
㉣금융	1	2	-	1	-	-
㉤마케팅·유통	1	-	-	-	-	-
㉥인력양성	1	-	-	-	-	-
㉦경영지원	11	2	5	2	1	2
㉧NGO	4	1	-	1	-	-
㉨언론	5	1	1	1	1	1
㉩노동	1	-	-	-	-	-
㉪여성	2	-	1	-	1	-
㉫일선기관공무원	4	3	-	-	3	-
㉬광역공무원	1	3	2	4	2	2
㉭기초단체공무원	1	-	1	-	-	-
㉮공사/공단	2	1	2	-	-	-
㉯광역단체의원	1	2	1	1	1	1
㉺기초단체의원	-	-	-	-	-	-
㉻학계	18	6	5	12	14	9
합계	56	24	24	29	23	21

*전략산업 1 분과 : 기계, 자동차, 조선, 해양바이오, 신발산업 등을 해당산업으로 함

**전략산업 2 분과 : 향만, 관광컨벤션, 영상·IT, 금융, 수산·가공, 섬유·패션산업, 실버, 을 해당산업으로 함

※자료 : 부산전략산업기획단 내부자료(2005)

5. 소결

분석결과에 따르면, 창업보육 사업과 입지 및 시설 지원사업의 대상이 업종별로 볼 때 대부분 IT업종에 국한되고 있다. 투자지원 사업도 부산벤처투자펀드의 운용대상 업체가 대부분 IT업종에 집중되어 왔다.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는 창업벤처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성장벤처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되었다. 이렇게 볼 때 지역의 벤처육성시책은 IT업종에 편중되어 왔고 업력별로는 성장단계에 치중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벤처기업의 구성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83.8%이라는 점과 기계부품산업의 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벤처기업 지원시책은 IT분야만이 아니라 제조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까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이 집중되어 왔던 IT분야에서도 그간의 지원이 S/W중심으로 몇몇 분야로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H/W 분야와 항만, 해운, 물류 등 부산 주력산업과 연동되는 분야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투자유치 지원도 수익률 확보 및 투자회수의 용이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IT부문에 집중 투자되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업체도 성장단계의 벤처보다는 창업단계의 벤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혁신생태계가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활동을 고취시키는 시책이 대단히 중요한데, 부산의 기술지원 활동은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부분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여 시책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책의 정확화 과정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혁신주체별 구성비율의 불균형도 해소되어야 한다.

V.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대한 수요자 태도

1. 분석방법

벤처기업 지원시책은 기업 실무자 보다는 최고 경영자가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최고

7) IT벤처기업에 시책이 편중된 이유는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 과정에 대한 지원효과가 타 업종에 비해 지원대상의 수, 수혜기업의 성과측정, 타 업종의 파급효과 등에서 사업성과가 가시적이고, 정보통신부의 소관사업 형태로 IT벤처 육성 시책이 별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자금지원의 측면에서의 편중현상은 증권시장 부양에 따른 IT벤처에 대한 선호경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영자를 벤처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수요자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대상 업종은 벤처구성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제조업 벤처가 압도적이었기에 제조업으로 한정하였고, 업력은 벤처기업 인증 4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전에 전화로 접촉하여 조사에 호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육성시책 분야별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해 팩스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4월 7~18일이며, 2006년 부산지역 벤처기업수의 10%에 해당되는 57개 기업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42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7부를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표 16]의 벤처기업 시책 전체에 대한 중요도 분석에서 응답자 평균은 3.443이고, 평균치를 상회하는 개별 시책은 투자지원 4.108, 부산이노비즈센터 운영 3.622, 창업동아리 지원 3.4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평가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투자지원 시책에 대한 태도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여실히 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동 시책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는 전체 평균 3.108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892에 불과하여 시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이노비즈센터 운영시책의 중요도 평가결과는 시제품 개발 전후의 제품양산체제 구축과정에서 벤처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창업동아리 지원 시책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는 동 사업이 실제 기업 운영과 별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벤처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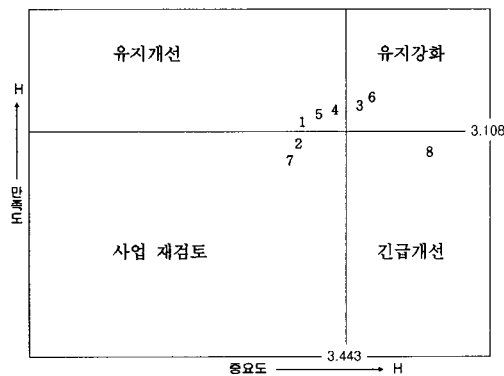
표 16. 설문분항 응답결과(n=37, 유의수준 0.05)

문항 내용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창업강좌	3.270	0.641	3.162	0.645
2 창업박람회	3.243	0.641	3.027	0.645
3 창업동아리 지원	3.459	0.650	3.270	0.508
4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	3.405	0.551	3.216	0.534
5 창업보육센터	3.297	0.571	3.189	0.616
6 부산이노비즈센터	3.622	0.681	3.405	0.498
7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활성화 지원	3.162	0.727	2.838	0.646
8 투자지원	4.108	0.614	2.892	0.809
전 체	3.443	0.687	3.108	0.639

한편 중요도 평가가 낮게 나타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창업강좌, 창업박람회, 창업보육센터 등에 관한 시책은 예비벤처기업, 창업직후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응답자의 관심권 밖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시책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는 전체 시책 중에서 가장 낮은 2.838에 불과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6]의 각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는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별 시책별 상대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요도의 전체 평균과 만족도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2x2 매트릭스를 그려 포트폴리오 분석⁸⁾을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중요도와 만족도의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기준보다 높아 현재 시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유지강화 분야에는 창업동아리 지원 시책, 부산이노비즈센터 운영 시책 등이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사업방식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긴급개선 분야에는 투자지원 시책이,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아 현행사업을 유지하는 하지만 향후 개선이 필요한 유지개선 분야에는 창업강좌, 창업보육센터,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 및 예우 등의 시책이 여기에 속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다 같이 낮아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분야에는 창업박람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등의 시책이 있다.

3. 소결

벤처기업 시책에 대한 정책 수요자관점에서의 평가결

8) 중요도와 만족도를 변수로 한 포트폴리오 분석의 방법은 현대리서치연구소의 200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요자 만족 조사에서 사용한 모델을 수정한 것이다[49].

과를 종합하면, 현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투자지원 시책, 부산이노비즈센터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확인되었다. 동시에 창업과 퇴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장한 벤처생태계 조성에 대한 벤처인들의 윤리의식의 단면을 창업동아리 지원시책에 대한 중요성 평가결과에 서 알 수 있었다.

포트폴리오 분석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책들 중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모두 낮게 나타난 창업박람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시책은 현실적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어 사업의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책의 중요도는 매우 높으나 시책에 대한만족도가 낮은 투자지원 시책은 긴급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울산지역의 중소기업체의 전국 비중은 2005년 10.4%,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10.6%인데 반해, 벤처기업의 전국 비중은 그 절반 수준을 하회하여 벤처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의 투자현황 분석에서는 부산지역 투자금액이 2006년 기준 전국 투자액의 0.95%에 불과하였고, 지역내 벤처기업의 최근 3년간 코스닥 등록율은 전국 비중 0.9%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실정에 비추어 볼 때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보호육성 중심에서 시장의 기능정립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의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지역의 산업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계기업 및 지역 벤처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벤처기업의 유형별 구성을 보면, 부산지역 벤처기업은 2006년 말 현재 567개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벤처기업이 475개로 부산지역 벤처기업수의 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서비스업 벤처기업은 14개로 2.5%에 불과하였다. 또한 벤처넷 등록 벤처기업의 유형분석에서도 전체 492개 업체 중에서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54개 (11.0%)에 그쳐 부산지역 벤처기업의 기술력 잠재력이 취약하고, 고위험 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벤처기업 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4개(0.8%)에 불과하여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구축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벤처기업 일반대상의 시책을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 IT업종에 국한되거나 IT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산지역 벤처기업의 구성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83.8%이라는 점과 기계부품산업의 지역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벤처기업 지원시책은 IT분야만이

아니라 제조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IT분야 지원사업도 그간의 지원이 S/W중심으로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H/W 분야 및 항만, 해운, 물류 등 부산의 주력산업과 연동되는 분야로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벤처업무가 IT·벤처로 통합되어 있는 현재의 업무분장 또한 분리하여 벤처지원 업무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시책은 2006년 말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록 회원사 111개 업체 중 부산지역 본사업체가 1개 뿐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2006년 현재 부산벤처투자펀드는 1-2호가 조만간 종료 혹은 종료될 예정이고, 부산지역 창업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은 171억원(전국 합계 46,722억원)에 불과하여 지역금융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펀드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 2007년부터 운용될 3호 펀드는 수익률 확보 및 투자회수의 용이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IT부문에 집중 투자되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애초 기획된 대로 전략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영대상 업체 선발과정에서도 성장벤처보다는 창업벤처가 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수요자 태도조사에서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모두 낮게 나타난 창업박람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시책은 현실적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구개발 부분의 각종 지표에서 부산은 전국 최하위권에 있어 부산지역 벤처생태계의 혁신동력 창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Prahalad, C.K. & Ramaswamy, V. 지음, 김성수 옮김, 경쟁의 미래, 2004.
-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6년 중소기업현황, 2006.
- [3]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지원대책[종합](2005. 9), 2005.
- [4] 한정화,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해결대안의 모색", 과학기술정책, 5·6월호, 2006, pp.63~73.
- [5] 산업자원부, 산업백서, 2006.
- [6]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경제동향, 2007년 4월호.
- [7] Neck, H.M. & Cohen, B.D., "A genealogy and taxonomy of high-technology new venture creation within an entrepreneurial system",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1999.
- [8] Morgan, G., *Images of Organization*, California:SAGE, 1986.
- [9] 이우광, 김범식, 유용주, "새로운 활로-벤처기업",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1997. 3. 26.
- [10] 정대용, 김용수, "벤처기업의 창업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평가와 벤처생태계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숭실대학교, 1999.
- [11] 송동원, 벤처진화의 법칙-벤처기업과 벤처생태계의 공진화, 삼성경제연구소, 2004.
- [12] 한정화, "한국 벤처생태계의 진화과정과 미래전망", 한국의 벤처생태계진단,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2000.
- [13] 설상수, 박정민, 서상혁, 대덕밸리의 형성과 진화, 삼성경제연구소, 2002.
- [14] Lagendijk, A., "From new industrial spaces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beyond: How and from whom should industrial geography learn?", EUNIT, Discussion paper 10, 1997.
- [15] Scott, A.J., "Flexible production system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rise of new industrial spaces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12, 1988.
- [16] 이벽규, "벤처생태계의 발전특성에 관한 비교고찰-중국의 중관촌과 한국의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35집, 2006.
- [17] Fromhold-Einsebeth, M., "Innovative Milieu and social capital: Exploring Conceptual Complementarities", Paper presented at the ERSA in Dortmund, Germany, August, 2002.
- [18] Porter, M.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1990.
- [19] Moulaert, F. & Farid Sekia, "Territorial innovation models: A critical survey", *Regional Studies*, Vol. 37, No. 3, 2003.
- [20] Morgan, K., "The learning region: institutions, innovation and regional renewal", *Regional Studies*, Vol. 31, 1997.
- [21] Pyke, P. & Sengenberger, W., *Industrial Districts and Local Economic Regeneration*,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1992.
- [22] Braunerhjelm, P. & Carlsson, B., "Industry Clusters in Ohio and Sweden",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2, 1999.
- [23] Storper, M., "The resurgence of regional economics, ten years later: the region as a nexus of un-traded interdependences", *Europe Urban and Regional Studies*, Vol. 2, No. 3, 1995.

- [24] Putnam, R.D., *Making Democracy at Work: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3.
- [25] 임채윤, 서지영, 이광호, 김병우, 김영훈, 김병기, 한국형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 [26] 이철우, 이종호, “지방대도시 벤처생태계의 제도적 및 문화적 환경: 대구지역을 사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1호, 2004, pp.1~27.
- [27] 고정민, “벤처생태계의 형성과 진화”,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1990. 4. 5.
- [28] 김학훈, “충북지역 벤처산업의 입지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5권, 제1호, 2002, pp.49~68.
- [29] 윤종언, “집적지별 벤처생태계 현황”, 한국의 벤처생태계진단,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2000.
- [30] 이희면, 권용주,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벤처집적시설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7권, 제3호, 2002, pp.39~64.
- [31]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 2006.
- [32] 송태정, 2003~2006년 간 지역별 경제적 고통지수 조사 보고서, LG경제연구원, 2007.
- [33] 산업자원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04.
- [34]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2007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2007.
- [35] 성소미, 한국의 벤처평가와 전망, 비봉, 2001.
- [36] 김태경, “부산지역 벤처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역사회학회 전국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1.
- [37]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사보 Venture Capital News Letter, 2006년 가을호.
- [38] 정형권, “혁신중소기업 금융과 벤처 캐피탈의 역할”, 혁신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pp.93~125.
- [39] 부산광역시, 부산시정백서, 2004; 2005; 2006.
- [40] 대신증권, 상장기업분석, 2007.
- [41] 서은숙·김현의, “금융기관 및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유효성 비교 및 추진과제”, 혁신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pp.11~48.
- [42] 한국벤처연구소, 200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2005. 11.
- [43] 손동원, 한국 벤처생태계의 성숙과 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 [44] (주)기술과 가치, 21세기 바람직한 벤처기업 정책방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2.
- [45] 임윤철, 정재용, 양현모, 새로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벤처) 정책 발굴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 [46] 부산상공회의소, 2004~2006년 부산경제백서, 2007.
- [47]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2006.
- [48] 김인중, 지식기반경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산업연구원, 2001.
- [49] 현대리서치연구소, 200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요자 만족 조사 결과보고서, 2005년 6월

김도근(Do-Geun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1988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경영전략, 조직개발, 중소기업